권진아 영상조회 100만건↑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6일 목요일 제2928호 www.metroseoul.co.kr

오승환 첫 시범경기서 1실점

월드컵 응원 출정식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이 5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D-100 붉은악마 응원 출정식에 앞서 응원전에 사용되는 태극기 유인물을 들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사하려면 인문학 공부하라"

대기업, 脫스펙 역사·교양 중시경향 뚜렷
오디션·글로벌 탐방 등 이색 방식 도입도

올 상반기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역사 등 인문학 공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에서 시작한 '탈스펙' 바람이 전체로 확산되면서 영어나 학점, 자격증보다는 역사 등 인문 교양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취업 스펙 쌓기에만 몰입하는 지원자를 배제하기 위해 오디션, 글로벌 탐방 등 이색 채용 전형을 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직자는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삼성·현대차 등 공채 스타트=상반기 공채를 가장 먼저 시작한 SK그룹에서는 지난 3일부터 SK텔레콤을 비롯해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 SK케미칼, SKC 등 10개 계열사가 원서를 받고 있다. LG그룹의 경우 5일 LG화학을 시작으로 LG하우시스, LG전자, LG유플러스 등이 차례로 인재를 뽑을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오는 24~28일 지원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13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른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중순부터, 포스코는 다음달 초부터 서류 접수에 들어간다.

대기업들의 올 상반기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그룹은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4000~5000명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2300~24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상반기에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1500~2000명, SK그룹은 인턴과 신입사원을 합쳐 500명을 올 상반기에 선발한다.

◆스펙만 믿다간 큰코다친다=스펙보다는 구직자 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채용 채널을 다변화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공채부터 학점, 영어 성적, 전공 등에 대한 제한 요건을 없애는 대신 역사 에세이를 작성하는 평가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를 30분 동안 1000자 이내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기아차도 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을 스펙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하는 '커리어 투어'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대학총장 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채용제도를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닥쳐 백지화한 삼성그룹은 필기시험인 SSAT에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에 관한 문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원자가 종합적·논리적 사고력과 보편적인 인문 교양을 갖췄는지를 비중 있게 보기 위해서다.

SK그룹은 창업 경험, 오지에서의 자원봉사, 오지 여행을 통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실제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적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바이킹 챌린지' 전형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들이 역사·문화·철학 등 다방면의 정보를 융합해 사고할 줄 아는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며 "구직자들은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이나 도전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등을 미리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北방사포에 中민항기 맞을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300㎜ 신형 방사포가 인근 지역을 비행 중이던 중국 민항기의 궤적을 스쳐가는 아찔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항행경보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전날 오후 4시17분에 1차로 방사포를 발사한 직후인 4시24분에 일본 나리타에서 중국 선양으로 향하는 중국 민항기(남방항공 소속 CZ628)가 방사포탄의 비행 궤적을 통과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국제적 항행질서 위반이자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민간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민항기는 에어버스321 기종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220여 명이 탑승해 있었고, 북한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가 지나간 상공을 6분 정도 차이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무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답답한 박스권 코스피 지수

기자 수첩
김 현 정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 보고서에서 아시아 주식시장을 '와호장룡'이라고 표현했다. 웅크린 호랑이와 숨은 용이란 뜻으로 강호의 숨은 고수들을 의미하는 중국 속담이다. IMF는 아시아 증시의 성장을 향한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수년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코스피를 보면 호랑이와 용이 언제쯤 깨어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국내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은 더 하락하고 있다.

국제신평사의 국내 기업 신용등급 강등에 싱가포르 등 해외 증시의 문을 두드리는 회사가 늘고, 한국 증시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위축된 지도 한참됐다.

코스피지수가 1850~2050선의 박스권을 뚫고 오를 만한 새로운 동력도 찾기 어렵다.

다른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다. 기업 실적 등 자국의 펀더멘털보다 각종 대외 정치·경제적 요소에 휘둘린다.

IMF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시각을 소개한다. 아시아 증시가 적절한 규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증시 관련 상품의 인프라 구축을 이루면 글로벌자본시장에 통합되고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한국의 경우 간과되는 소액주주 권리의 보호를 통해 주식시장 자금 조달 기능 회복을 이루는 선순환 고리를 대입해볼 수 있다.

한국 증시에 필요한 개선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외국기업에 컨설팅…우려 목소리

서울시 장밋빛 맥킨지 보고서 "내부 정보 공개 아니냐"

서울시가 5일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이 권고한 경영 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5대 산하기관에 대한 2조3639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국적 기업인 맥킨지에 서울시 내부 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외국의 사례를 접목한 것은 국내 현실이나 공기업 문화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이날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SH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경영 혁신 보고회를 열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역사 상가를 활용해 구두 수선·세탁·티켓 판매처럼 수요가 많은 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가 분리돼 생기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사 발주, 물품 구매, 신규 철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콜센터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두 공사는 컨소시엄이 권고한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7년 후 1조8500억원의 재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SH공사는 매입 임대주택 현장조사 강화, 입주민의 임대주택 관리 참여, 설계 기준 내 대체재와 신공법 적용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조6000억원인 채무를 2020년엔 4조원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 사업 중 글로벌센터,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정보센터 사업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월드컵경기장과 지하상가, 어린이대공원, 승화원, 추모공원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모 교수는 "요즘 대기업도 다국적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기업 정보를 노출하는 컨설팅을 자제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체 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을 추구한다. 하물며 서울시가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하는 맥킨지에 속살을 모두 내보인 것이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변모 교수 역시 "지하철 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SH공사의 막대한 채무 문제를 거론한 것은 과거에도 이야기됐던 부분"이라며 "다만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 양 공사가 운임 이외의 수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특정 역 근처에 소재한 기관들에 돈을 받고 해당 역 표지판에 역사명을 표기해주는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접목한 내용들이 우리 공기업 문화와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적십자실무접촉 12일 갖자"

정부가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우리 측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측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해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우리의 적십자 실무 접촉 제의에 즉각 호응해올지는 불투명하다. /김민준기자

통합신당 수뇌부 회동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양측 지도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연석회의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여기

북한이 최근 정밀도가 향상된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0여기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KN-02 미사일에 대한 위협평가'를 통해 북한이 KN-02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170㎞까지로 늘렸으며 미사일도 100기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GPS 유도 방식으로 KN-02 미사일의 목표물 명중 오차를 50m 안팎으로 줄이는 등 정밀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KN-02 미사일은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지 않고 발사되기 때문에 한·미 연합감시자산으로 사전에 탐지가 쉽지 않아 더욱 위협이 되고 있다. /김민준기자

새누리·통합신당 접전 예상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한 이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3일 전국 성인 남녀 9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 신당의 지지율은 35.9%, 새누리당은 40.3%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 없음'은 19.9%였다.

경향신문이 3~4일 전국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3%, 통합 신당 29.8%를 보였다.

통합 신당에 대한 뚜렷한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 등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0.6%로 통합 신당 박원순 시장(36.9%)을 오차 범위(±4.4%포인트) 내인 3.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지사 대결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35.1%로 통합 신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22.8%)보다 12.3%포인트 앞섰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남경필·유정복 "출마하겠습니다"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5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연금법 논의 보건복지위 소집

●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기초연금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5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안,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조속히 결론 내기 위해 복지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사태 피해 시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5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의 배상 및 대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부대학 수시 전형 바뀐다

2015학년 교과·비교과 반영비율 제각각

일부 대학교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새로운 전형을 개설했다.

5일 교육업체 진학사가 분석한 '2015학년도 신설 수시모집 전형'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했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교과 70%와 비교과 30%를 반영해 수험생을 최종 선발하기로 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자연계열 등급 합 5 이내다. 다만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또는 과탐 중 1개 이상 2등급을 받아야 한다.

고려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융합형인재전형'을 신설했다. 1단계에서 서류(교과 80%+기타 20%)로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적용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평균 2등급이어야 하고, 의과대학은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합계 4등급을 요구한다.

서강대는 교과 75%와 비교과 서류 25%를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만들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 4개 영역 중 3개 각 2등급, 자연계열 2개 각 2등급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양대는 1·2단계에서 학생부 성적 100%와 면접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 성적을 100%로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2개 전형을 신설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반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한국외대에서는 교과 성적 100%로 뽑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새롭게 실시된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한국장학재단 사회공헌대상 수상

한국장학재단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교육장학공헌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공헌대상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 기관 등을 선정해 매년 수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제도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주요 장학 활동으로 지난해 3조원 규모로 지원했던 국가재원 장학금을 올해 3조7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렸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늘어난 점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도 이뤄냈다.

이번 사회공헌대상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방통대, 기능성 쌀 2종 업무협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일 오전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개발한 기능성 쌀 두 가지 품종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 및 업무협약을 ㈜이롬, ㈜새싹과 체결했다.

두 품종은 '슈퍼자미'와 '슈퍼홍미'다. 슈퍼자미는 기능성 물질로 알려진 C3G 성분이 지금까지 육성된 쌀보다 10배 이상 높아 항산화·항염·항암·항아토피·항당뇨 등의 심혈관계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또한, 품종 출원 중인 슈퍼홍미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식생활 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관계 기관의 발전과 농촌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 도입 업체인 ㈜이롬과 ㈜새싹은 새로운 품종을 통한 수익이 ▲올해 3600만원 ▲2015년 3억여원 ▲2016년에는 2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미국화가 오키프 사망

꽃과 사막의 화가 조지아 오키프가 1986년 3월 6일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남성화가 위주의 20세기 초 미국 미술계에서, 꽃그림을 그리던 시골의 미술교사 오키프는 뉴욕의 저명한 사진가이자 화상인 앨프리드 스티글리츠에게 발탁돼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스티글리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오키프는 추문과 명성을 함께 얻었으나 뉴멕시코 산타페의 자연을 탐미적으로 화폭에 담아내 세계적인 화가의 자리에 올랐고 청교도적 자연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영동 다시 눈 경칩을 하루 앞두고 폭설이 쏟아진 5일 강원 강릉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영동에 내린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치고 경칩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간첩사건 국정원직원 조사

검찰은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을 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진상조사나 수사 모두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른 절차여서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유우성씨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을 고발했다.

윤 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유우성씨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한다, 안 한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형사 사법공조 요청과 관련해 "어제 오후 요청서와 관련 문서를 외교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김승연회장 봉사연기 신청

김승연 한화 회장이 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를 신청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석방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화 측은 구속 기간에 당뇨·만성 폐질환·우울증 등을 앓아온 김 회장은 "현재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회봉사 명령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이 열려 참석한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문학원 이사장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5일 학교법인 재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김무성(63) 새누리당 의원의 친누나인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만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이 기간 관리인으로 근무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고령인 데다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대부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고 김용주 전방그룹 창업주의 외동딸로, 현대증권과 현대상선 등의 주주다. 용문학원은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윤다혜기자

최저임금 위반 신고 크게 늘어

지도·감독 업체 수는 50%↓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1101건으로 2012년의 62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용부 전주지청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서부지청(62건), 의정부지청(48건), 서울청(47건), 대전청(46건) 순이었다.

그러나 고용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지난해 9943개사로 2012년 2만1719개사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도·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6081건 중 시정 조치가 된 경우는 6063건(99.7%)이었고,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된 건수는 각각 6건, 12건이었다.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당사자의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노동 현실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최저 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면서 지도·감독 확대와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준기자

고급아파트 억대 절도범 구속

분당경찰서는 5일 고급 아파트만 골라 억대의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 오후 7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고급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9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오는 등 같은 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1시30분께 안산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0.05g씩을 투약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검거됐다.

초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1991년부터 절도 범행과 마약 투약을 함께해 처벌받은 전력도 거의 비슷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용기기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 보수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 정산 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 및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부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가이드

Q1.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설업, 벌목업은 2014년 3월 31일(월요일)까지 별도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Q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기재해 17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 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Q3.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보수총액 신고는 많은 양의 근로자 고용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면 신고나 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는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방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 보수총액 신고 기한 내 토털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4. 신고 대상 근로자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상용·일용 및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나이, 연도 중 퇴사자,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방법이 다르므로 안내문 등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중 근로자 고용 정보가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신고(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님.

Q5.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65세 이상자(65세 이전에 고용돼 65세 이후에 실직한 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기존에는 64세가 되는 달부터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보험료 징수

–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만 납부.

Q6.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하면 신고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고용 종료일이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해 이를 이용하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강서구, 도서관 천국 만든다

5년간 10곳 이상 짓기로

서울시 강서구는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총 40곳 확대를 목표로 '도서관 천국'을 만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구는 앞으로 5년간 10곳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구립도서관 1곳과 작은 도서관 2곳을 확충한다.

가양동 가양유수지 부지에 총 65억원을 들여 지상 3층 3013㎡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조성한다.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지난 2월 19일 착공에 들어갔다.

도서관은 교양 강좌실·자료 열람실·세미나실·열람실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도서 대출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건전한 여가 활동과 취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현송(왼쪽) 강서구청장이 도서관을 둘러보며 서적보관 상태를 살피고 있다. /강서구청 제공

상반기에는 염창동과 내발산동에 작은 도서관 2곳이 문을 연다.

염창동지역정보센터 내 136.8㎡ 규모의 옹기종기 도서관은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발산동의 서울시 공공기숙사 내에는 수명산도서관이 지하 1층 256㎡ 규모로 조성, 3월 말 문을 연다.

구 관계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을 공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가양동 CJ공장 부지 내 신축 시설 건립 시 기부채납 등을 통해 작은 도서관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

중국 올 경제성장 7.5% 가능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직능별 대표 2932명이 참석한 전인대 개막식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과 마찬가지로 최근 쿤밍 철도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밝혔다.

리 총리는 "견고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심사숙고 끝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예상 목표치를 7.5% 안팎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3년 연속 동일한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바오바'(保八·8%대 성장률 유지)를 포기하고 안정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5%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 밖에서 5일 붉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 안내원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올해 국방예산은 8082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보다 12.2% 늘린다. 국방예산 증가는 국방 개혁과 군 현대화를 통해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스모그 등 환경문제와 관련,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면서 "소형 석탄 보일러를 퇴출하고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과 낡은 차량 600만 대를 폐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13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심의,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2차대전 투하 대형폭탄 발견

metro HongKong

홍콩 도심에서 제2차세계대전 당시 사용되던 초대형 폭탄이 나왔다.

4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해피밸리 경마장에서 900kg 규모의 공중투하폭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되면서 전쟁 당시 폭탄이 종종 발견된다"고 밝혔다.

폭발물처리과의 위안한룽(袁漢榮) 주임은 "폭탄의 위력이 강력한 데다가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있어서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수압절단기를 이용해 탄피를 제거하고 폭약을 연소시켜 마침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콩은 2차대전의 주요 전쟁터 중 하나였다. 경찰은 계속해서 소구경탄, 수류탄, 폭격포, 고폭탄, 수뢰, 공중투하폭탄 등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폭탄들은 실탄 훈련 때 불발탄이거나 전쟁 기간에 남은 폭탄이다.

위안 주임은 "대부분이 전쟁 당시의 공중투하폭탄이다. 이 폭탄들은 땅속에 묻혀 아직까지 폭발하지 않고 있다. 도시 재개발로 이런 '문물'들이 계속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중투하폭탄 중 30%가 아직 폭발하지 않았거나 효력을 잃었으며, 주룽반도·홍콩섬 북구·완차이 등 지역에서 발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군은 1930년대 홍콩 수역에 수뢰 200여 개를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겨우 3개다. 하지만 위안 주임은 "수뢰가 수중에서 부패되고 모래자갈로 뒤덮여있어 위험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한숨 돌리나

푸틴 "당장 軍투입 안해"

"당장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은 없지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크림반도를 장악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크림반도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력 충돌 위기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푸틴은 친러시아 성향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 우크라이나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속하게 군사력을 동원해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은 뒤집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새 정부는 물론 서방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푸틴 대통령이 군대 파견 가능성을 남겨뒀지만 실제로 그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는 3일 긴급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와 비자 면제 협상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 방안에 합의, 6일 긴급 소집된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비트코인 거래소 잇단 폐업

온라인 가상 화폐 '비트코인'의 해킹으로 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캐나다 소재 비트코인 '은행'도 예치금 도난으로 4일(현지시간) 문을 닫았다.

캐나다 앨버타의 플렉스코인은 "지난 2일 공격을 받아 온라인에 저장된 모든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 도난으로 경영 파탄 상태에 빠졌다며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5일>

코스피 1971.24 (+17.13)

코스닥 536.77 (+5.23)

금리(국고채 3년) 2.90 (−0.01)

환율(원·달러) 1070.50 (−0.50)

뉴스&뉴스

한은 외환보유액 사상최대

●한국은행은 2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3517억9000만 달러로 전월 3483억9000만 달러보다 34억 달러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6월 3264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7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보유액이 늘어난 이유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나 외환 보유고가 늘었고 유로화 등이 강세를 보여 이들 통화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은 3228억9000만 달러로 1월보다 40억3000만 달러 늘었고 예치금은 6억1000만 달러 줄어든 18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밖에 금 47억9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34억9000만 달러, IMF포지션 25억 달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원기자

개인정보 거래 208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의 활동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매매한 혐의가 있는 업자 208명을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업자 21명이 같은 연락처로 총 163건의 인터넷 광고물을 게재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중국(37건), 필리핀(3건), 미국(2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에도 44건의 불법 광고를 올렸다.

감시단은 대출사기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선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김현정기자

연금복권520 제140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2조	732864
		1조	994097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166119
4등	100만원	각조	11058
5등	2만원	각조	887
6등	2000원	각조	51,87
7등	1000원	각조	4,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아파트 2년만에 다시 '분양가>매매가'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2년 만에 매매가를 재역전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게 일반적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분양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착한 마케팅'이 이어지면서 역전됐다. 그러다 작년 분양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2년 만에 다시 추월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951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3.3㎡당 평균 매매가는 888만원으로 분양가보다 63만원이 낮았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전국 분양가는 1065만원을 기록한 반면, 매매가는 174만원 낮은 891만원을 기록했다. /박선옥기자

신형 쏘나타 문 열면 품격 가득

24일 공식 출시 앞두고 실내 이미지 공개… 가격 2200만원대부터

현대자동차가 신형 쏘나타의 실내 렌더링 이미지와 가격대를 5일 공개했다.

신형 쏘나타의 실내 디자인(사진)은 안전성, 직관성, 간결성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수평형으로 디자인된 안정된 느낌의 넓은 실내 공간 ▲사용자의 편의와 직관성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설계(HMI·Human-Machine Interface)' ▲완성도 높은 디테일과 고급스러운 컬러 및 소재 적용 등을 통해 세련되면서도 품격 있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대차는 운전자를 향한 T자형 수평적 레이아웃을 적용해 운전자가 보다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신형 쏘나타는 기존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킨 '플루이딕 스컬프처 2.0(Fluidic Sculpture 2.0)'을 신형 제네시스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해 기존 모델에 비해 정제되고 품격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외에도 신형 쏘나타는 '잘 달리고, 잘 서는' 차량의 기본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운전 영역 중심의 동력 성능 향

상,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 미국 모하비 주행시험장 등 국내외 곳곳에서 철저한 성능 검증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초고장력 강판(AHSS·Advanced High Strength Steel, 인장 강도 60kg급 이상) 적용 ▲구조용 접착제를 기존 모델 대비 확대 적용 ▲핫 스탬핑 공법이 적용된 부품 수 증가 등으로 차체 강성을 강화하고 차체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충돌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7에어백 시스템 등 첨단 안전 사양을 적용했다.

한편 신형 쏘나타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누우 2.0 CVVL 모델이 2270만~2880만원 ▲세타 2.4 GDI 모델이 2400만~3010만원(이상 자동변속기 포함)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가격은 이달 24일 신차 발표회 때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가격대 공개와 함께 5일부터 전국 현대차 지점을 통해 오는 24일 출시 예정인 신형 쏘나타의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진정된 우크라이나… 살아난 코스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유지하면서 코스피가 반등했다.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13포인트(0.88%) 오른 1971.24로 장을 마감하며 1970선 회복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가계 저축 증가율 6년래 최저

가계의 은행 저축성 예금 증가율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가 은행에 돈을 맡긴 총 예금은 501조701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축성 예금(459조7435억원)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계의 예금 중 요구불예금(41조9584억원)이 20.3%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요구불예금 증가율은 지난 2001년(21.3%)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정기예금·적금 등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구불예금은 저축성 예금과 달리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바로 지급하는 예금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이 해당된다. 이자율이 아주 낮아 목돈 마련 기능은 없지만 인출이 자유롭다.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2.3%에서 2009년 9.7%를 거쳐 2010년 16.0%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9.4%, 2012년 6.2%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둔화했다. 기본적으로 가계의 여윳돈이 풍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얼굴 편 증권·건설·시멘트

내수활성화·中 경기부양 기대감에 주가 강세

업종 침체로 부진을 겪던 경기민감주들이 봄바람을 타고 기지개를 켰다. 내수 활성화와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증권, 건설, 시멘트 업종 등의 중소형 종목에까지 골고루 훈풍이 불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 오른 1497.19를 기록했다.

유진투자증권이 5% 넘게 오르고 HMC투자증권, 골든브릿증권이 2~3%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증권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거래 급감과 적자 기업 속출로 고전을 겪었다.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곳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건설주 역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계룡건설이 상한가까지 치솟고 한신공영, 화성산업은 6~7% 넘게 뛰었다. 삼부토건·대림산업·삼호·진흥기업 등도 2~3%대 상승 행진을 이었다.

바닥을 친 물가가 반등하고 중국이 시장이 기대했던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점도 호재로 풀이됐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를 끌어올려 자산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아울러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꾀하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쌍용양회, 성신양회 등 시멘트주들도 시멘트 가격 6~10% 인상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업황 개선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다만 유례없는 저물가 기조에서 물가가 소폭 오르더라도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과 중국이 3년 연속 경제성장 목표 7.5%를 제시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삼성 커브드 UHD TV 최대 100만원 할인 삼성전자 모델들이 커브드 UHD TV를 감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대 100만원 할인 혜택이 있는 커브드 UHD TV의 예약·보상 판매 행사를 31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월세 소득 2000만원 이하 2년 비과세

2016년 분리과세 전환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 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2년간의 비과세를 감안해 과거 소득분에 대한 세금 부과도 최소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분리 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과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늘리고, 주식 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한국은행 인사태풍 부나

파격발탁된 '김중수맨들' 새 총재 취임 이후 잔존 여부 주목

한국은행의 새 총재로 이주열(사진)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되면서 한은에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조짐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일부 한은 간부의 '도미노 이동'이 현실화될지 여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통 한은맨이 총재로 복귀하면서 임원급은 물론 국·실장급 인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 내부에서는 '사화' 수준의 인사 태풍이 불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중수 현 총재가 다소 파격적인 발탁 인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김 총재 시절 외부에서 영입됐거나 고속 승진을 했던 임원들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총재가 외부에서 영입한 김준일 부총재보, 여성 출신으로

처음으로 임원이 된 서영경 부총재보가 대표적인 발탁 인사다.

김준일 부총재보는 지난 2010년 12월, 3년 임기의 경제연구원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내정된 데 이어 1년여 만인 2012년 2월에는 부총재보로 내정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외부 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내부 보직을 거치지 않고 부총재보에 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영경 부총재보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서 부총재보는 2급 승진을 한 지 2년이 채 안 된 2012년 말에 1급으로 승진했고, 7개월 만에 부총재보 자리에 올랐다.

당시 한은 안팎에서는 여성 대통령 시대가 도래한 것과 맞물려 이런 초고속 승진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한편 금통위원 가운데 다음달 말 임승태 금통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한은법상 금통위원에는 총재·부총재, 5개 경제 유관 단체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통위원 5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임 위원의 후임으로도 한은 고위직 출신이나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추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참치모둠회 2만원도 안되네 5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홍보도우미들이 참치모둠회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2일까지 호주산 참치모둠회(300g)를 40%가량 저렴한 1만98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저신용자 은행대출 문턱 낮춘다

신용평가모델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게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증가한 반면, 전체 10등급 중 7~10등급의 저신용등급 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일부 저신용층은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 개선을 지도, 7개 은행이 추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하나·국민·농협 등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 모형과는 별도로 저신용자의 특수성을 반영,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환·광주·경남 등 3개 지방 은행은 자체 등급 이외에 외부 신용평가 전문회사의 평가 등급을 추가로 활용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 활성화를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전문성 및 관리 역량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원기자 pjw89@

금융사 주민번호 요구 첫 거래 틀때만 하도록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고객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가입 신청서에 정보 이용 동의 문구가 커지며 전화영업 고객 안내가 강화된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보험이나 카드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이후 거래 시에는 신분증이나 인증 시스템 등으로 대체된다.

금융 상품 신청서 양식도 이름, 식별번호, 주소 등 필수 항목과 소득, 재산, 연령 등 선택 항목으로 나뉘며 제휴사 정보 공유도 세분화돼 고객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정원기자

통신공룡 군살 빼는 '황 트레이너'

issue&view
KT와 황창규 회장의 한달

임원급 50% 축소 '채찍'… KT맨 중용 '당근'… 위기 넘을 몸 만들기 중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지난 1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취임한 황 회장은 취임 후 한 달여간 KT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 직원 기살리며 삼성식 경영

황 회장이 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 단행이다. 우선 황 회장은 최근 임원급 직책 규모를 50% 이상 축소하고 슬림화에 따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영업력 강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전체 임원 수도 130여 명에서 100여 명 수준으로 27% 줄였다.

삼성에서의 경영을 바탕으로 KT그룹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미래융합전략실'도 신설했다. 미래융합전략실은 각 부문·실, 그룹사별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미래 성장 엔진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융합전략실 실장에는 과거 KT에서 신사업추진본부장, 미디어본부장 등을 지낸 윤경림 전무가 선임됐다.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황 회장은 KT맨을 신임했다. 주요 직에 대부분 KT 출신을 선임한 황 회장은 다만 그룹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실장에는 삼성 출신인 김인회 전무를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엘리베이터·구내식당에도 변화

황 회장이 취임한 뒤 변화의 눈길을 끈 것 중 하나는 KT 사옥 내부 시스템이었다. 우선 광화문 사옥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15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는 형태였지만 황 회장 취임 이후 저층용, 고층용, 전층용으로 각각 나눠 운영하기 시작했다. 저층용은 1~9층과 15층, 고층용은 1층과 9~15층을 운행하면서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내식당 이용 역시 기존에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배식이 이뤄졌지만 최근 이를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30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별 점심 시간을 각기 다르게 배정하면서 이전보다 더 원활한 배식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사기·영업정지 등 숙제 산적

KT는 최근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짜고 벌인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여전히 손해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해외 사업도 문제다. 이 때문에 황 회장은 이 전 회장 시절 벌여놓은 사업들 중 시너지가 없거나 부실한 사업을 상당수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BIT 프로젝트는 과감히 정리했다. 이로 인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봤지만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황 회장의 과감한 리더십과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하면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유주영기자 boa@

차원이 다른 5도어 쿠페… 아우디 RS7 스포트백 출시 아우디코리아가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시장에서 고성능 5도어 쿠페 '아우디 RS7 스포트백'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막 짓던 아파트 '수요자 맞춤' 변신중

전용면적·평면 다양화

공급자는 짓기 편하지만 수요자는 살기 불편했던 아파트가 공급자는 짓기 까다로워졌지만 수요자는 살기 편한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다. 분양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더 이상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마라"는 식의 영업 방식이 통하지 않게 돼서다.

이에 따라 과거 중소형이라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전용면적 59㎡(25평형), 84㎡(33평형) 아파트만 공급됐다면 요즘에는 76㎡(28평형), 79㎡(29평형) 등 틈새 평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같은 면적이라도 타입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수요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바야흐로 아파트가 사람에 맞추는 시대가 등장한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에 소형부터 대형 펜트하우스까지 25~216㎡의 다양한 주택형을 제공한다. 가족 규모나 구성원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주겠다는 의도에서다.

또 맞벌이 부부 증가 현상에 맞춰 카페테리아 내 특급호텔 수준의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소, 세탁, 발레파킹, 교통·호텔·레스토랑 예약부터 관공서 업무 대행까지 맡아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효성은 경북 칠곡군 '남율2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3차'에 앞서 1·2차에 적용해 인기를 끌었던 1층 하부 멀티룸을 다시 한번 선보인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공간을 덤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재, 극장, 놀이방 등 입주민이 필요한 맞춤형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최근 틈새 평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용면적 74㎡를 절반 이상 배치했다.

중흥종합건설이 경남 창원시 현동지구 일대에서 분양 중인 '창원 현동 중흥S클래스2차'는 선택형 내부 인테리어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세련된 타입의 '어반클래식'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노블클래식' 총 2개의 스타일로 구성, 수요자 기호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게끔 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전국 재건축 아파트 8000가구 연내 분양

이달 이후 전국적으로 7900여 가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된다.

5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는 22개 단지, 7997가구다.

올해 재건축 분양 아파트 중 특히 강남권 물량이 눈에 띈다. 우선 이달 대림산업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헐고 전용면적 84~113㎡, 총 368가구를 짓는 '아크로힐스 논현'을 이달 분양한다. 57가구가 일반 분양 몫이다.

같은 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92㎡, 전체 3658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84~192㎡ 111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외 GS건설이 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를, 대림산업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각각 서초구 서초동에서 서초우성3차와 서초삼호를 재건축한 아파트를 연내 공급한다.

또 이르면 12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2차를 전용면적 39~150㎡, 총 9510가구로 탈바꿈하는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도 공급된다. 일반 분양분도 1578가구에 달한다. /박선옥기자

새학기 수다쟁이 통화료 걱정그만

개학시즌엔 음성 할인·데이터 빵빵한 요금제 골라 쓰세요

3월은 학교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의 스마트폰 수다가 늘어나는 계절이다. 새 학기에 어울리는 통신 3사 서비스를 소개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발신하는 국내 음성·영상 통화를 반값에 제공하는 'T끼리 전교생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혜택 제공 기간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3년, 대학생은 6년이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휴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KT는 개강을 맞아 'LTE 데이터플러스'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해 추가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 고객을 겨냥한 것이다. 이 요금제는 LTE 스마트폰의 데이터 이월 요금제 가입 고객이 추가 데이터 사용을 원할 때, 총 3종의 데이터량 가운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월 정액 8000원이면 500MB를, 1만3000원 1GB, 1만8000원의 경우 2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할 때 월 9000원으로 추가 과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LTE 안심옵션 서비스'를 운영한다. LTE 데이터 단말기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LTE 데이터 셰어링' 요금제도 있다.

통신 3사 이벤트를 잘 이용하면 신학기 준비물도 마련할 수 있다.

SKT는 12일까지 네이버 검색창에 광고 카피 '잘생겼다 LTE-A'를 검색하는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샤넬 서프백과 아이패드 에어 등을 증정한다.

KT는 올레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신학기를 위한 쿠폰 및 무료 체험 기획전을 31일까지 연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포인트 등을 사용해 안경테, 문구류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LG U+는 지드래곤 아이템 이벤트를 14일까지 진행한다. 자사 LTE 모델 지드래곤의 광고 미공개 영상을 U+ 박스에서 감상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면 지드래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제이에스티나 백팩을 받을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이마트, 세컨드TV 출시 5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가전매장에서 도우미들이 새로 선보이는 이마트 드림뷰 24형 LED TV를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 제공

팬택 워크아웃 확정…부활 위한 AS 강화

팬택의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하지만 팬택은 이와 별개로 고객 편의를 위해 사후 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에 나선다고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였다. 팬택은 이에 따라 26개월 만에 두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다.

반면 팬택 측은 이와는 별개로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팬택 서비스센터 토요일 운영시간 연장 ▲이마트 입점 서비스센터 연내 20개 이상 추가 오픈 ▲'베가 시크릿 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운영체제(OS) 킷캣(안드로이드 4.4)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다.

서비스센터 운영시간의 경우 토요일도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마트 내 서비스센터 입점을 올해 말까지 전국 35개 이마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팬택은 서비스센터 토요일 운영 시간 연장, 이마트 서비스센터 연내 20개 이상 추가 오픈, '베가 시크릿업' 킷캣 업그레이드 등 사후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팬택 제공

아울러 팬택은 다음달 '베가 시크릿 업'을 시작으로 기존 모델의 OS를 킷캣(안드로이드 4.4)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킷캣 업그레이드 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기능을 한층 개선하고 신규 기능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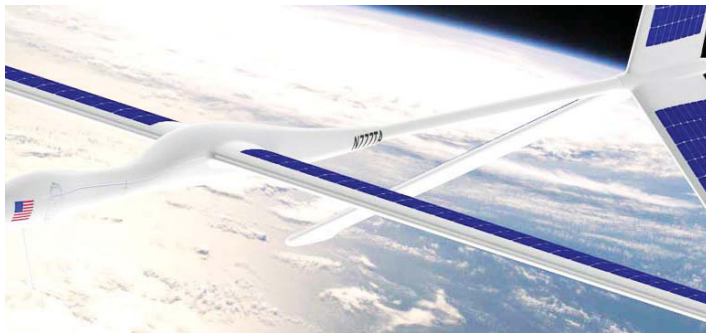
/이재영기자 ljy0403@

페이스북·구글 '오지 인터넷 보급' 전쟁

'아프리카 사막, 아마존 정글에서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하자.'

세계 인터넷 산업의 양대 산맥인 페이스북과 구글이 '오지 인터넷 보급'을 놓고 치열한 아이디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위성을 발사해 지구 전역을 인터넷으로 묶겠다는 '이리듐' 서비스 보급이 비싼 사용 요금 때문에 20여 년째 지지부진하자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페북 태양광 무인기로 통신망 제공 추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페이스북이 태양광 무인비행체(UAV) 제작업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사진 왼쪽)를 인수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의 '솔라라 60' 모델 1만1000대를 사용해 아프리카 지역부터 무료 무선인터넷을 보급할 계획이다. '솔라라 60'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며 해발 20km 고도에서 5년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다.

비행 고도가 낮아 대기권 내를 움직인다는 점에서 지구 주변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인공위성과 큰 차이가 없고 제작·발사·관리 비용이 낮다고 테크크런치는 설명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아프리카·남미·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에 무료 무선인터넷을 보급하는 '전 세계 인터넷 연결사업'(internet.org)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 기조연설에서 "현재 세계 인구 3분의 1인 27억 명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나머지 50억 명은 인터넷을 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인터넷 연결은 인간의 권리이며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글 열기구 이용 프로젝트 진행 '착착'

이보다 앞서 구글은 열기구로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룬(Loon·오른쪽)'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열기구는 항공기의 2배 높이인 고도 20㎞ 성층권에 띄워 탑재된 인터넷 중계기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뉴질랜드 등에서 실험을 진행해 3세대(3G) 휴대전화망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절친과는 사업도 찰떡궁합?

글로벌 이코노미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절친'. 평소 호흡이 척척 맞는 친구와 사업을 하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찰떡 궁합'이 될까.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친구와 사업을 시작한 여성 창업주들을 소개하며 '절친 비즈니스'의 장단점을 짚었다.

수영복 모델인 넬 로빈슨(27)과 패션 바이어인 앤 마리 클라크(29).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만나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클라크는 수영복 업체 '뱅'을 창업하면서 혹시라도 사업 문제로 다퉈 우정에 금이 갈까봐 가장 두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은 일도 생길 텐데, 일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처음에는 말과 행동을 매우 조심했다"면서 "하지만 사업할 때는 솔직한 비판과 조언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다"고 덧붙였다.

◆ 친구와 동업자 '모호한 경계'

친구와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친구와 동업자 사이의 '모호한 경계'다. 친한 친구를 매몰차게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여겨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룸메이트로 만난 알렉시스 미에슨(38)과 제니 던다스(43).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유기농 아이스크림 업체 '블루 마블'을 창업했다.

미국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업체 '블루 마블'의 공동 대표인 제니 던다스(왼쪽)와 알렉시스 미에슨. /BBC 제공

두 사람은 친구이자 동업자로 일하면서 종종 애를 먹을 때가 있다고 했다. 동업자로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친구로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이중생활' 때문. 사업상의 일로 다툴 때 감정이 개입돼 자칫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사업 초기에 많이 힘들었죠. 우정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의견 충돌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서로 취향이 달라서 제품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미에슨은 "매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두 사람의 협업 덕분에 블루 마블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뉴욕시에서 최초로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인증을 받았다. 또 블루 마블은 브루클린 지역에 판매 상점은 물론 제조 시설까지 갖추면서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업체로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다. /seonmi@

'내가 꾸미는 주방'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로 '프리미엄 토탈 홈 인테리어 유통매장 한샘 플래그샵(Flagshop) 목동점'에서 관계자들이 부엌 상품 기기와 수납 시스템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키친랩(Kitchen Lab)'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눈으로 콘텐츠 보는 스마트 안경

엡손 '모베리오 BT-200' 내놔… 가볍고 작아져

구글의 야심작 '구글글라스'가 올해 안으로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스마트 안경 시장을 선점하려는 브랜드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프린터로 유명한 엡손이다. 엡손은 지난해 '모베리오 BT-100'이라는 상용 제품을 이미 선보였다. 그런데 성이 차지 않았는지 1년 만에 더 향상된 제품을 내놓았다.

5일 공개한 2세대 스마트 안경 '모베리오 BT-200'이 주인공이다. 스마트 안경은 어떤 앱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에 있는 동영상 등을 무선으로 즐길 수 있다.

구글글라스의 경우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 시야에 들어온 물건을 바로 사는 기능 등이 장착될 예정이다.

엡손의 신제품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구글글라스와 분위기가 흡사하지만 '양안식'이라는 구동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구글글라스는 디지털 신호가 한쪽 눈 부분에만 나타나지만 모베리오 BT-200은 양쪽 눈 부분에 LCD 프로젝터와 광학장치를 내장해 두 눈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게다가 디지털 신호를 끄면 일반 안경으로도 쓸 수 있어, 바깥의 사물을 보기 힘든 여타 제품과 차별화된다.

제품의 무게는 88g으로 1세대 제품보다 58% 가벼워졌고, 부피도 120cc로 전작보다 64% 줄였다는 게 엡손 측 설명이다.

엡손의 스마트 안경 '모베리오 BT-200'을 쓴 모델들이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다. /엡손 제공

액정 패널 해상도는 960×540을 채용했고, OS는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적용했다. 한 번 충전하면 6시간 동안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모베리오 BT-200은 이르면 5월에 출시되며 가격은 70만원대다. /박성훈기자 zen@

"MS 윈도 공짜…구글 붙자"

사티아 나델라 CEO 승부수 자체 검색엔진으로 수익 노려

"우리는 모든 업무를 명확하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배경의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수장으로 발탁된 사티아 나델라(사진) MS 최고경영자(CEO)가 5일(한국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의 핵심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e메일이 발송된 날 MS는 윈도7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신 운영체계(OS) 윈도8.1을 공짜로 푼다고 밝혔다. 즉 안드로이드 OS처럼 줄 때는 화끈하게 무료로, 대신 부가 사업 모델을 장착해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MS가 윈도를 저가 노트북에 한해 1만6000원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차례 외신으로 접해왔으나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갓 나온 제품을 그냥 준다고 한 것은 '파격' 그 자체다.

구글의 다양한 공짜 소프트웨어로만 작동하는 노트북 '크롬북'의 급성장과 함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OS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MS가 판단한 셈이다.

MS의 효자 상품인 윈도가 무료화되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MS가 이 같은 승부를 던진 것은 자체 검색 엔진 '빙'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공짜 윈도8.1은 빙이 통합된 운영체제다. 인터넷 서핑을 할 때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빙이 결과를 찾아주고 이에 따른 광고나 검색어 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IT 전문매체인 더버지는 "MS가 구글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공짜 윈도는 제조사는 물론 개발자들의 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MS는 모바일 운영체제 '윈도폰'도 사실상 공짜에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무료' 날개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함에 따라 무료는 기본이고 '+알파'를 선보일 것을 예고했다.

PC에서는 물론 모바일 세상에서도 MS와 구글은 피할 수 없는 앙숙이 됐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누가 먼저 백기를 드느냐다.

무료 OS·앱 철학을 이어온 구글과 달리 갑자기 OS를 무료로 전환키로 한 MS가 일단 강펀치를 한 대 맞고 시작하는 싸움임은 분명하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대용량 데이터 어디서든 접속 'ADM 2.1' 출시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졌다.

시스템 전문기업 아수스토어의 한국 공식 공급사 에이블스토어가 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NAS(네트워크스토리지) 운영체제인 아수스토어 데이터 매니저(ADM) 2.1 최신 버전을 선보였다.

ADM 2.1은 개인 클라우드 저장장치인 NAS를 보다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파일 탐색기 창에서 NAS와 컴퓨터의 파일 디렉토리를 한번에 볼 수 있고 PC 없이 고화질(HD) TV와 연동해 미디플레이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모바일로도 개인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어 편하다.

아수스토어 데니스 치우 세일즈 매니저는 "데이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ADM 2.1을 이용하면 개인도 대용량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TV의 듣는 즐거움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얼마 전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뱅앤올룹슨 매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덴마크에서 건너온 이 브랜드는 스피커 한 대가 1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싼 가격표로도 유명하다.

게스트 라운지에서 판매 중인 TV를 봤는데 투박한 외관에 깜짝 놀랐다. 세계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에서 만든 TV는 날씬하고 샤프한 느낌인 반면 뱅앤올룹슨의 TV는 네모 반듯하면서 약간 비만인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본다. 이 제품은 '베오비전 11'(사진)으로 47인치 기준 1590만원이다. 삼성·LG의 '미스코리아' 뺨치는 몸매를 지닌 최신형 디지털 TV는 비싸도 200만원 안팎이다.

즉 최대 8배 가격 차가 나는 이 럭셔리한 제품이 '왜 이토록 뚱뚱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이다.

호기심을 품고 제품을 켠 뒤 화질을 살펴봤다. 일본 파나소닉의 패널을 장착한 이 제품의 화질은 국내 기업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의문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바로 '소리'였다. 구하기 어려운 영화표를 얻어 맨 앞자리에서 스크린을 우러러보며 작품을 관람할 때 접했던 그 사운드 말이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저음의 사운드, 아침 이슬이 호수 표면에 떨어질 때 나는 청아한 고음의 소리를 이 TV는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일반 TV에 비해 스피커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 6개의 스피커 수는 물론 출력 역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

"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위한 충분한 사운드를 전달하려면 일정 수준의 스피커 스펙이 충족돼야 한다. 결국 스피커 성능을 위해 부득이하게 제품 두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설명과 함께 베오비전 11의 두께(6cm)가 삼성·LG 제품의 6배 수준이라는 추가 정보도 건네줬다. 한마디로 TV의 본질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인데 보는 것에 치중하느라 듣기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TV는 누구나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사실상의 생필품 아니냐?"

맞는 말이다. 1500만원짜리 TV와 200만원짜리 TV는 만날 수 있는 주인이 다르다. 그렇다면 제품의 본질은 어떤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데….

볼 때마다 바뀌는 것을 본질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님 매번 달라지는 게 진정한 본질일까.

14학번 멋쟁이 '응답하라! 야구점퍼'

올봄 캠퍼스 패션 '스포티즘' 바람 분다

대학가는 개강과 함께 옷차림이 가벼워진 새내기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올봄 새내기들의 복장을 보면 스포티한 스타일의 아이템이 눈에 띄게 많아진 점이 특징이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인천아시안 게임 등 스포츠 행사가 많아 '스포티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티즘의 대명사 '야구점퍼'

스포티즘 바람을 타고 일명 '야구점퍼'로 불리는 스타디움 재킷이 잇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스타디움 재킷의 울 혼방 소재는 보온성이 뛰어나 늦겨울부터 봄까지 착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색상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트루릴리전의 부다리그 재킷은 블루 컬러에 허리와 소매 끝의 화이트 스트라이프 밴딩으로 스포티한 분위기를 한층 더 가미했다.

귀여운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은 여성은 레드와 옐로가 믹스된 스타디움 재킷이 안성맞춤이다. 이때 슬림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레이어드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보디라인을 살려 여성미를 뽐낼 수 있다.

트루릴리전의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따뜻해진 날씨에 봄 아우터 준비를 서두르는 이들이 눈에 띈다"며 "스타디움 재킷은 데님에 매치하면 캐주얼한 느낌을 살릴 수 있고 블랙진과 함께 코디하면 시크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포티즘의 완성 '스니커즈'

스포티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단연 스니커즈다. 특히 올봄은 네온 컬러의 믹스매치와 과감한 포인트 제품이 눈에 띈다.

스니커즈 전문 브랜드 수페르가의 제품은 오렌지·라임·블루 등 단색의 화사한 컬러감이 스니커즈만으로도 스타일에 강렬한 포인트가 된다. 또 독특한 색감과 패턴으로 유명한 스트라다에서는 화려하고 개성 있는 색감의 '조거라인'을 출시해 다시 한 번 마니아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시즌을 막론하고 패션 피플들이 선호하는 포인트 스타일은 애니멀 패턴이다. 호피 무늬나 얼룩말 문양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패턴으로 특히 수페르가의 애니멀 패턴 스니커즈는 야성미와 섹시함을 스포티한 소재로 적절히 가미했다.

징 장식이 돋보이는 수페르가의 스니커즈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터드 장식을 처리해 시크하면서도 발랄한 느낌을 준다. 이와 함께 빈티지한 느낌으로 처리된 신발 중창이 멋스러움을 강조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씨엘 첫 화장품 CF "눈꼬리 메이크업 뜰걸!"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씨엘이 생애 첫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 5일 메이블린 뉴욕은 씨엘과 함께한 '아이 메이크업 화보'를 공개했다. 씨엘은 또렷한 블랙 아이라인에 눈꼬리를 길고 날렵하게 마무리하고 눈가에 자신의 이름인 'CL'을 타투로 새겨 넣어 눈길을 끌었다. /메이블린 뉴욕 제공

샴푸 골라 썼더니 "샵 다녀왔니?"

헤어스타일 연출 도움 주는 기능성 제품 다양

메이크업 전 기초케어를 탄탄히 해야 하듯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김정한 실장은 "헤어 스타일링의 기본은 올바른 헤어 관리에서 시작한다"며 "개인의 두피와 모발에 맞는 제품으로 깨끗하게 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발에 광채를 주고 싶다면 '윤기 샴푸'를 사용하면 된다. 샴푸의 전 성분 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디메치콘은 실리콘 성분을 의미하는데 이 실리콘은 모발의 윤기와 매끄러움을 더해준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 샴푸가 두피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알려지면서 식물성 오일 컨디셔닝 성분을 담은 무실리콘 샴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건성 피부도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하듯 건조하고 푸석한 모발에는 '수분 샴푸'가 적합하다. 수분 샴푸로 건조함을 해결한 뒤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로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주면 촉촉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다.

힘이 없거나 축 처진 모발을 가진 사람을 위한 '볼륨 샴푸'는 정수리 부분의 볼륨을 살려 줄 뿐 아니라 모발 한 올 한 올을 살려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특히 웨이브 헤어의 컬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풍성한 헤어 스타일을 연출해준다.

'퍼퓸 샴푸'를 사용하면 마치 향수를 뿌린 것처럼 은은하면서도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기를 표현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기 취향에 따라 향기 샴푸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샴푸 향도 로맨틱한 프루티 플로럴 계열에서 깊고 우아한 우디 계열까지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이대 제2병원 연구 인재 대거 영입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제2병원 건립을 앞두고 임상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달 1일자로 김윤근(사진)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를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겸 연구중심병원 추진단장에 임명하는 등 임상 교수 6명과 기초 교수 2명을 영입했다.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은 연구중심병원 확립을 위한 제반 연구 시스템 정비는 물론 기초·임상연구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부임을 계기로 향후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기초·임상 중개 및 융합 연구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게 된다.

/박지원기자 pjw@

한라산 트레킹 가고 커플 자전거 받고

아웃도어 사은행사 줄이어

본격적인 아웃도어 시즌을 맞아 관련 브랜드들이 다양한 사은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레드페이스는 이달 말까지 '한라산 트레킹 원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 레드페이스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과 온라인 소문내기 참가자만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등 15쌍에게 다음달 24~26일 진행되는 한라산 트레킹 원정 체험의 기회를 준다. 레드페이스는 트레킹 원정대의 제주행 고속페리 탑승권을 포함한 교통비와 숙박 등 여행 경비 일체를 지원한다. 이 밖에 여행 도서 '일생에 한 번은 남미로 떠나라', HD 고화질 포토북 사용권을 경품으로 준비했다.

블랙야크 키즈는 신학기를 맞아 31일까지 주말마다 '럭키박스 프로모션'을 펼친다. 전국 블랙야크 키즈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블랙야크의 '그린카드'를 신규로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럭키박스에는 블랙야크 키즈 양말과 학용품·완구용품 등 약 10종의 기념품 가운데 하나를 담았다.

노스페이스는 '화이트라벨 커플을 위한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연다. 16일까지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매장에서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응모권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1등 커플 한 쌍에게 프리미엄 바이크 스캇 자전거 2대를 선물로 준다.

/박지원기자 pjw@

편의점 '화이트데이 쇼핑족'에 러브콜

중저가 선물용 제품 늘리고 포인트·할인·경품 혜택 다양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마케팅을 통해 고객끌기에 나섰다.

먼저 씨유(CU)는 13~14일 이틀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CU모바일 캔디 교환권' 또는 '캔디크러쉬사가 게임 아이템'을 무료 증정한다. 또 캔디뿐 아니라 초콜릿 상품 등 다양한 스위트 상품을 많이 찾는 남성 고객들을 위해 밀크 푸딩 등 디저트 상품도 함께 준비했다. 1만5000원 이상 구매 고객이 CU멤버십을 적립하면 1000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고 오는 12일까지는 CU멤버십 10% 추가 적립도 해준다. 신한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데이 행사의 스테디셀러인 '마켓오 초콜릿' 전 상품 30%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GS25는 1만원대 중저가 상품을 지난해보다 7종 늘린 45종으로 확대하고 가방·지갑·화장품·액세서리·시계 등 20여종 상품을 준비했다.

또 GS25는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선물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 동안 멘토스·리콜라·스카치캔디·가나초콜릿 등 57종 상품에 대해 2+1 행사를 벌인다.

편의점 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3가지 크기의 애니팡2 캐릭터 인형도 판매한다. 오는 16일까지 화이트데이 세트 상품 75종에 대해 POP티머니로 결제 시 10% 할인과 함께 POP티머니 회원에게는 GS&포인트 10배(10%, 적립금액 5000원 한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제휴통신사 멤버십(LGU+, 올레클럽) 15% 할인까지 더하면 고객들은 최대 31%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니스톱의 경우 페레로로쉐 상품을 별도의 비용 없이 귀엽게 포장할 수 있도록 캐릭터가 그려진 DIY 포장상자 3종을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프리미엄 수제 초콜릿 '이루다 쇼콜라티에(IRUDA Chocolatier)'을 도입했고 미니케이크 2종도 선보인다. 10일부터 17일까지는 2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5000명까지 제공한다. 올레 KT 멤버십 고객은 화이트데이 상품 구매시 15%의 할인 혜택을, SKT멤버십을 포함한 OK캐쉬백 회원은 1% 적립 또는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엔크린 보너스 카드 회원들 역시 OK캐쉬백 5% 적립 또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총 90여 종의 선물에 대해 1만원대 'DIY형 모음 상품' 구색을 전년보다 3배 이상 대폭 강화했다.

총 40여 가지 상품을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통사(올레KT) 15%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최대 32%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목캔디, 아이스브레이커 등 기존 베스트 상품을 대상으로 2+1 행사도 벌인다.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코너에 '세븐일레븐 기획전'을 열고 30여 종의 베스트 상품을 대상으로 모바일 할인쿠폰도 운영한다. 행사 상품 구매객을 대상으로 총 3000여 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 뮤지컬관람권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마지막 특가' 손짓

비발디파크 스키월드가 오는 16일 폐장일까지 특별균일가로 막바지 스키 시즌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7일부터 9일까지 스키월드를 방문하는 고객은 단일권과 복합권을 각각 2만원, 2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소인은 30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렌털 가격은 복합권이 1만원, 단일권이 7000원이다.

이어 10일부터 16일까지는 주간만 운영되는데 이때 단일권은 1만원, 복합권은 1만5000원이다. 단 14일과 15일은 야간 및 새벽에도 스키를 탈 수 있다. /황재용기자

장 기능 개선 돕는 '장엔장' 1+1 행사

가공 음식·부족한 섬유질·기름진 육류 섭취·운동 부족 등으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내 노폐물이 제때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장 기능 개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들건강(www.isandle.co.kr)은 봄을 맞아 장엔장을 하나 구입하면 하나 더 제공하는 1+1행사를 진행한다. 가스명수·쓸기담·우황청심원 등을 만드는 삼성제약에서 출시한 장엔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제조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이눌린·치커리 추출물 등 49종의 엄선된 원료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증받았다. 문의: 070-4265-5000 /정혜인기자

실내화의 모든 것 '인꼬' 쇼핑몰 오픈

실내화 전문 쇼핑몰 '인꼬'가 오픈했다.

인꼬는 신우실업에서 제작한 실내화 브랜드인 UGBY를 판매하는 쇼핑몰로 실내화·욕실화·아웃도어·특수화 등 다양한 제품을 다룬다.

UGBY 실내화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무독성 압축가공수지(EVA)로 제작해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탁월하다. 또한 가볍고 쿠션감이 좋아 발과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기념해 인꼬는 오는 31일까지 실내화를 최대 3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신우실업은 욕실 슬리퍼 최초로 미끄럼 방지 '논 슬립 PAD' 기능을 갖추고 해외 20여 개국에 수출하는 신발 전문기업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칠성사이다 '맑고 깨끗한' 새 모델 이현우·진세연 롯데칠성음료가 국민 음료 '칠성사이다'의 새 모델로 최근 드라마,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배우 이현우·진세연을 캐스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등장하는 칠성사이다의 새로운 캠페인 광고는 이달 중 프리론칭편과 댐잉이편, 파도편 등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본편으로 나눠 TV·라디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쇄 광고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대학교·커피전문점 등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청춘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제공

미술관도 공연장도 "봄나들이 오세요"

겨울을 지나 꽃피는 봄이 왔다. 새봄을 기다리는 꽃망울처럼 서울 시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충무아트홀에서는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를 재조명한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가 공연된다. 고흐의 살아 숨 쉬는 그림이 3D 프로젝션 맵핑 기법을 통해 무대 위에 펼쳐지며 그의 인생이 담긴 음악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오는 8일부터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영웅인 아버지를 주제로 한 연극 '내 마음의 수퍼맨'이 이어진다.

서울 시내 곳곳의 공원과 서울대공원에서는 봄맞이 체험을 할 수 있다.

▲개구리의 한 살이(길동생태공원) ▲겨울왕국에서 깨어난 양서류(남산공원이용지원센터) ▲자연관찰 창작교실(서울창포원)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되며 서울대공원에서는 야생화와 난, 그리고 원예 작품 등을 활용한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봄꽃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아파트 인생전'이 열린다. 아파트를 주제로 한 전시로 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아파트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시립미술관 앞 덕수궁 돌담길을 산책하며 민영순·윤진미·조숙진 등 여성 예술가 3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노바디'와 서울과 런던에서 활동 중인 손혜민, 존 리어든의 작품전인 '성장교본(The Growing Manual)'이 새봄을 장식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우리동네 그 호떡집 외국서도 먹혔네

망고식스·네네치킨·스쿨푸드 등 프랜차이즈 국내스타일 그대로 해외진출 성공 '외식 한류'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외국 시장 진출이 한류의 접목과 특화된 메뉴 등의 전략을 도입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 홍첸루에 문을 연 망고식스 상하이 1호점. 이 매장의 경우 드라마 PPL(Product Placement)의 효과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엔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에 등장한 '망고&코코넛', '신사의 품격'에 나온 '블루레몬에이드' 등을 마시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이 길게는 2시간 동안 줄을 서기도 한다.

최근 문을 연 상하이 2호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1000~2000명 정도이며, 평일 낮 시간에도 주문을 하기 위해 늘어선 행렬이 매장 밖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드라마에 등장했던 메뉴가 하루 900잔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유럽풍 프리미엄 디저트류 쿠헨·와플·요거트 아이스크림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망고식스는 지난해 옌지점을 시작으로 상하이 1호점, 원저우점 등 3개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 상하이 2호점(구베이점)을 열었고 5월 난징에 1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2012년 말 싱가포르에 첫발을 내디딘 네네치킨(사진)은 진출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에 3호점까지 개장하고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싱가포르 외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매콤한 한국식 양념이 어우러진 다양한 치킨 메뉴로 싱가포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한글이 표기된 간판과 한국식 배달 문화로 한류의 인기 속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한류에 힘입어 한글을 사용한 브랜드 이미지(BI)를 싱가포르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네네치킨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브랜드라는 점도 하나의 메리트로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캐나다 등에서 해외 매장을 운영 중인 불고기브라더스도 국내 운영 방식을 해외 매장에 도입한 경우다. 한글 간판과 메뉴 명칭을 국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간단한 인사말은 한국어로 할 수 있게 현지 직원들을 교육시켰다. 대나무 문양 벽지와 금강산전도 등으로 전통미를 보여줄 수 있는 인테리어로 매장을 꾸미는 등 한식의 맛과 함께 멋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11번째 해외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중국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분식 프랜차이즈인 스쿨푸드는 지난해 10월 홍콩 소개 전문 사이트인 '오픈라이스'에서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 1위에 올랐다. 스쿨푸드는 홍콩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로 '한국식 메뉴'를 꼽았다.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메뉴를 홍콩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한다는 전략하에 각 메뉴들의 모든 소스와 장아찌를 한국 본사에서 공수하고 레시피와 조리 과정을 한국과 동일하게 해 판매하고 있다. 현지화보다는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진출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해 홍콩 진출 두 달 만에 맛집 1위의 쾌거를 기록했다.

씨앗호떡은 현재 덴마크와 미국 등 4개국에 진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씨앗호떡 관계자는 "해외 매장 중 한글 간판을 사용한 매장이 소비자들로부터 더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주문 즉시 핫하게! 던킨 핫밀 드세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던킨도너츠 핫밀 3종 출시행사에서 셰프 복장의 모델이 매직오븐에서 핫밀을 꺼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모닝콤보 메뉴를 리뉴얼한 '굿모닝 플랫브레드'와 '할라피뇨 불고기 핫도그' '허니 크랜베리 치아바타' 등 3종으로 주문 즉시 매장에서 따뜻하게 데워 제공되는 제품이다. /던킨도너츠 제공

패스트푸드, 웰빙푸드로 진화중

고칼로리 대표 치킨·피자 야채 곁들여 건강함 추구

최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웰빙 열풍이 일면서 먹거리에도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계가 웰빙 트렌드에 맞춰 과거 고칼로리와 육류 위주의 제품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바꿔 건강 사이드 메뉴를 도입하거나 천연 식재료를 활용하는 등 패스트푸드에 대한 편견을 벗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촌치킨의 경우 건강을 고려한 샐러드 메뉴를 도입했다. 치킨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및 섬유질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했다. 이 샐러드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돼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새콤달콤한 드레싱(블루베리·리얼 오렌지)과 5가지 채소의 조화로 튀긴 음식 특유의 느끼함을 줄여주고 치킨 맛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라피자노스트라(사진)는 시금치를 이용한 레시피를 통해 여성들에게 '살찐다'는 피자의 관념을 깨기 위해 스피니치랜치피자를 출시했다.

'토마토도시락'은 2000~6000원대의 저렴한 가격대에 맛과 영양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이 특징. 여기에 도시락 전문점의한계인 '질린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요·덮밥·퓨전·오피스 메뉴와 각종 계절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정영일기자

모바일커머스 "올빼미족 졸았나"

CJ오쇼핑 시간대별 매출 심야 비중 줄고 오전 급증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커머스는 그동안 심야 시간(자정~5시)의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오전 시간(7~12시)의 매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CJ오쇼핑이 2012년부터 2014년 1월까지의 모바일커머스 매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 중 모바일커머스 비중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 전체 매출 중 모바일커머스 비중은 18%로 지난해 전체 비중인 9%보다 2배가량 상승한 것이며, 전년 같은 달 비중인 6%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모바일커머스는 올해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전 10시와 11시에는 20% 중반대의 비중을 차지하며 동시간대 인터넷 비중을 4% 가량 앞섰다.

이 회사의 경우 2012년 11%를 차지하던 심야 매출 비중은 올해 7%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오전 시간 매출은 2012년 26%에서 2013년 27%를 거쳐 올해는 32%까지 상승했다. /정영일기자

돈가스·떡갈비·너비아니 모두 '착한 가격'

강강술래 이달말까지 파격 할인 혜택 제공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식품 파격 할인행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mℓ×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mℓ×5팩·10인분) 2만2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사골을 우려낸 국물은 콜라겐과 칼슘 등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 보충에도 좋다. HACCP 인증시설에서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았다.

100% 국내산 돼지의 등심 부위에 생(生)빵가루를 입혀 만든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비타민 E와 아미노산이 풍부한 흑임자를 넣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와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칠한우떡갈비'(360g×3박스·4만2000원)도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만든 5종 수제 모듬 소시지(385g×4세트)는 21% 할인된 1만5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는 30% 할인된 2만5200원에 판매한다.

주문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080-925-9292)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신림점은 28일까지 주중에 한우스페셜·모둠구이·양념등심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5만원 이상 결제 시 냉면쿠폰 1매, 10만원 이상은 냉면쿠폰 2매를 제공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매년 봄을 알리는 축제는 목야지에 불을 놓았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들불을 준비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축제에서 선보인 오름 정상 화산 분출쇼. /제주도청 제공

화들짝! 제주의 봄 깨우는 불쇼

7~9일 새별오름서 들불축제

방목 풍습서 유래된 전통 대동놀이·풍물 행진 이어 마지막 날 정상서 열리는 화산 분출쇼·불놀이 장관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 등 세계적으로 드높아진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제주에서 새봄의 기운이 전해진다. 경칩을 하루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무사 안녕과 힐링 인 제주'를 주제로 '2014 제주들불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는 것이다. 제주만의 색과 멋, 맛과 정을 듬뿍 담은 감동을 느껴보자.

◆봄 준비하던 쉐테우리의 풍습

들불축제는 방목을 하던 제주의 농경 풍습에서 유래됐다. 방목을 맡았던 목동(쉐테우리)들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서 경칩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목야지에 불을 놓았던 것이 축제의 기원이 된 것이다.

이에 축제는 제주가 자랑하는 새별오름에서 열린다. 새별오름은 '샛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오름으로 남쪽 봉우리를 정점으로 작은 봉우리들이 북서 방향으로 타원을 그리며 옹긋게 솟아있어 들불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더욱이 이 오름은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몽골의 잔존 세력인 목호(牧胡)를 토벌한 전적지로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새해 무사 안녕 기원 '희망 불씨'

축제는 3일 동안 일자별로 '무사 안녕의 날(7일)', '도민 통합의 날(8일)', '희망 기원의 날(9일)'로 구성된다.

우선 첫째 날에는 축제 유치 기원제를 시작으로 축제를 여는 대동놀이, 풍물 희망 기원 대행진 등이 열린다. 특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사 안녕 횃불 대행진과 가리(눌) 만들기 경연 대회, 가리 태우기가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8일에는 도민과 방문객, 외국인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장이 마련된다. 도민 대통합 줄다리기, 힐링의 불 나눔 행사, 집줄 놓기 경연 등의 행사가 이어지고 읍·면·동 대항 넉둥베기 경연 대회, 마상마예 공연, 제주 힐링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횃불 점화, 오름 정상 화산 분출쇼 및 연화 연출, 대형 희망 불씨 점화, 오름 불놓기 등을 통해 올 한 해의 무사 안녕과 만사형통 등 새 희망을 기원하게 된다.

◆오름 트레킹·잔디 썰매…힐링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즐비하다.

들불축제 종합홍보관이 운영되고 오름 트레킹 체험, 잔디 썰매 타기, 희망의 들불 촛대 만들기, 이벤트 벽화 그리기 등의 체험 행사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들불 캐릭터 야광봉 만들기, 기마대와 함께하는 포토존, 제주의 소릿길 체험 등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며 제주의 청정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점, 제주 전통 민속주 코너 등은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게다가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관광객 쉼터와 키즈카페가 운영되며 바가지 없는 음식점 운영을 위한 가격 표시제도 실시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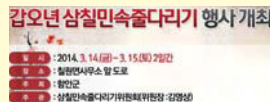
- 날짜: 3월 7~9일(금~일요일)
- 장소: 제주도 제주시 새별오름
- 문의: 제주도 제주시 관광진흥과 064)728-2751

구석구석

◆삼척 정월대보름제
- 날짜: 3월 7~9일
- 장소: 강원 삼척시 엑스포 광장

축제는 삼척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기줄다리기, 살대 세우기, 달집 태우기, 망월놀이 등 9종의 민속놀이 행사와 줄연 시연, 법고 치기, 강원 우리 술 선발제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선 1300년 전통의 오금잠제 별신굿이 재현되고 팔씨름 대회와 윷놀이, 술비놀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진안 운장산 고로쇠축제
- 날짜: 3월 15~16일
- 장소: 전북 진안군 운일암 반일암 삼거광장 일원

말끔한 고로쇠 수액 한 잔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는 고로쇠 증산 기원제로 시작된다. 또 한국무용, 풍물 공연, 각설이 공연 등의 볼거리와 고로쇠 체험 건강 걷기대회, 고로쇠 수액 채취 체험, 고로쇠 시음회 등 고로쇠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갑오년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 개최

◆삼칠민속줄다리기
- 날짜: 3월 14~15일
- 장소: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사무소 앞

축제에서는 축제 기원제를 시작으로 전통무, 풍물농악 공연, 불꽃놀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청룡과 백호로 나뉘어 진행되는 줄다리기와 경품권 추첨은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김치 명인 매운 손맛·대장간 달인 60년 뜨거운 맛…

'장인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장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3월 새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했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문화원한옥체험마을김치테마파크에서는 국내 '김치 명인 1호'인 김순자 명인의 비법을 배울 수 있다. 유치원생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누구나 손쉽게 김치를 만들 수 있으며 맛깔손 전통음식체험관에서도 우리 먹거리 만드는 법을 체험할 수 있다.

철의 생산지로 유명한 충주시에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쇠를 녹여 철제 기구들을 제작해온 삼화대장간을 만날 수 있다. 충주시 무학시장 입구 누리장터에 위치한 대장간은 올해 75세인 도 지정 무형문화재 야장 김명일 선생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며 철로 제작된 단호사 철조여래좌상(보물 512호·사진)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염색장 정관채(56) 선생과 함께 쪽 염색을 체험할 수 있다. 무명천을 짜고 쪽물을 들이는 체험으로 한국전쟁 이후 끊어진 쪽 염색의 맥을 나주와 정관채 선생이 이어온 것이다. 또 나주읍성을 돌아보고 100년 전통의 곰탕을 맛볼 수 있으며 영산포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홍어의 참맛도 느낄 수 있다.

/황재용기자

"키스신 찍을때 각도까지 계산… 하하"

별그대 끝낸 김수현

도민준으로 안방의 여심을 흔든 배우 김수현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작은 얼굴로 내로라하는 여배우들에게 굴욕을 준 그의 가장 큰 매력은 소두나 큰 키도 아닌 짙은 눈매. 눈으로 연기하고 싶다는 그는 인터뷰를 어색해하며 '도할배'다운 너털웃음을 치기도 했지만 작품과 연기에만큼은 진중했다.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 온 그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별그대' 김수현 그리고 도민준

김수현은 외계인 도민준을 연기했지만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400년이라는 세월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민준은 감정을 누르고 살아요. 외계인이라서 다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도민준을 두고 데뷔 후 자신이 맡아 온 캐릭터들의 총 집합체라고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해 혼자 고민하고 PD·작가와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흘러온 세월 속에 상처 입은 도민준을 표현할 수 있었다.

영화 '도둑들' 이후 두 번째로 만난 전지현(천송이)과는 더욱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지현 누나는 성격이 쾌활해서 연기할 때 즐겁고 편했어요. 연기하는 동안 '나는 최고의 천송이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독 많은 키스신을 소화해야 했던 김수현은 촬영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 도민준은 지구인과 침이 섞이면 기절하기 때문이다.

"키스를 하면 아파요. 그래서 능숙해야 하나 어설퍼야 하나 정말 고민했죠. 하지만 저는 시청자들이 제 키스신을 보고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더 각도를 만들기도 했죠.(웃음)"

해피엔딩으로 종영했지만 김수현이 생각한 결말은 달랐다.

"배우는 물론 PD도 마지막 회 내용을 몰랐습니다. 마지막 대본을 받기 전 저는 도민준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시한부 사랑으로 종영하길 바랐어요. 시청자들이 눈물·콧물 다 쏟는 그런 엔딩이요. 하지만 행복하게 마무리된 것도 정말 좋았어요."

◆ 27세 배우, 그리고 인간 김수현

김수현은 자신의 성격을 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성격은 배우라는 직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집요할 정도로 한곳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보니 간혹 연기를 할 때 전체를 봐야 시야가 넓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숲이 아니라 나무, 특히 '나무들'을 보려고 합니다. 연기를 할 때 매 컷, 매회, 작품 전체. 이렇게요."

도민준 지금껏 연기한 캐릭터 집합체
결말 시한부 사랑으로 종영하길 바라
난 고집쟁이… 흥행 3연타 운 좋았죠

그의 집요함이 대중과 통한 것일까? 2012년 MBC '해를 품은 달'의 조선시대 가상의 왕 이훤부터 지난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간첩 원류환, 그리고 올해 '별그대'의 도민준까지 3연타 대박을 터트리며 흥행력 있는 20대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작품을 선택할 때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극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그동안 작품 운이 좋았다"며 흥행 이유를 겸손하게 설명했다. 흥행 불패를 이어오지만 고민도 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니까 감사하지만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선택하는 역할이 로맨틱 코미디에 한정됐다는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공격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죠. '나는 언제 이런 걸 연기해보지?'라는 고민보단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요. 계속 해나가다 보면 다양한 인물을 만날 거라 믿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키이스트 제공·디자인/박은지

★3월 14일(금) 밤 11시 20분 tvN 첫방송★

매주 금요일 밤 11시 20분 방송

상남자 김현중 vs 상남자 박유천

두 아이돌 배우 수목극으로 연기 맞대결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종영한 가운데 수목극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아이돌 출신 배우인 김현중(사진 왼쪽)과 박유천(오른쪽)이 있다.

두 사람은 각각 KBS2 '감격시대: 투신의탄생'(이하 '감격시대')과 SBS '쓰리데이즈'에 출연하며 남성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올 전망이다.

'감격시대'는 꽃미남 김현중이 아닌 상남자로 변신한 그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별그대'에 밀려 늘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극중 파이터지만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신정태 역을 맡은 김현중의 액션 연기는 매회 짙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전체 24부작 중 절반 이상을 달려온 '감격시대'는 10회 이후부터 작가가 교체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현중은 지난 4일 "작가가 바뀌면서 연기 톤이 달라진 것도 배우가 캐릭터를 지키면 되는 일이다"며 작가 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5일 첫 방송된 '쓰리데이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별그대'의 후속작이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작품의 중심에 있는 박유천은 대통령 경호원 한태경 역을 맡아 불의를 보면 주체하지 못하는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한다.

박유천 외에 손현주·박하선 등이 출연하는 '쓰리데이즈'는 '뿌리깊은 나무'의 신경수 PD와 '유령'의 김은희 작가가 1년 이상 기획한 작품으로 장르적 특징이 강한 드라마다. 극의 구성이 탄탄해서 출연하게 됐다는 그는 지난 26일 제작발표회에서 "수준 높은 액션으로 멋진 드라마가 되길 바란다"고 각오를 밝히며 액션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K팝스타3' 권진아 보고싶다
방송영상 조회수 100만건↑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의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권진아(사진)의 방송 영상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

2일 방송된 톱 8 결정전의 권진아 무대는 4일까지 동영상 전문 사이트 네이버 TV캐스트에서 조회 수 100만 건을 넘겼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다른 사이트의 동영상 재생 횟수까지 합하면 200만 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권진아의 이름은 방송 직후부터 이틀간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에 올랐고, 그가 부른 원곡인 프라이머리의 '씨스루'는 음원차트 톱 10에 등장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권진아는 시즌2 지역예선에서 이미 탈락한 바 있어 이번 시즌에서 보여주는 돌풍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즌 본선 2라운드에서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를 자신만의 색으로 편곡해 호소력 짙게 불러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후 라운드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해 톱 10 예상 멤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톱 10과 톱 8을 뽑는 배틀 오디션과 '톱 8 결정전'에서 모두 1위로 진출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한편 한희준·배민아·장한나·남영주·썸띵(정세운·김아현) 등 B조가 벌일 '톱 8 결정전'은 9일 방송된다. /유순호기자 suno@

가수 이현도 제작자 변신

힙합 전설 듀스 출신의 이현도(사진)가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제작자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원포원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한 이현도는 5일 "그동안 음악적 교류를 통해 관계를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함께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음반 프로듀서는 물론 제작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데뷔 후 20여 년간 많은 가수들과 작업해온 이현도는 지난해 엠넷 '쇼미더머니 2'에서 D.O크루를 이끄는 멘토로 활약하며 변함없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올 초 선보인 MBC 드라마 '기황후' OST와 영화 '피끓는 청춘' OST로 힙합은 물론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이현도는 D.O크루로 인연을 맺은 래퍼 딘딘의 앨범 제작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1호 가수로 선보일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안방극장 연상연하 열풍 계속

'로필3' 후속작 '마녀의 연애'도 14세차 커플 등장

안방극장에 한동안 연상·연하 열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상녀, 연하남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며 '로필 신드롬'을 이어나간 tvN 월화극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3'(이하 '로필3')가 지난 4일 종영한 가운데 다음달 방송 예정인 후속작 '마녀의 연애'에도 열네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 등장할 예정이다.

'로필3'은 수년간의 사회생활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성공만 바라보며 사는 연상녀 신주연(김소연)과 현재의 감정에 충실한 연하남 주완(성준)의 연애 스토리를 그리며 여성 시청층을 사로잡았다.

엄정화(사진 왼쪽)가 5년간의 공백을 깨고 브라운관 컴백작으로 선택한 '마녀의 연애'는 결혼을 앞두고 사라져버린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을 닫은 반지연(엄정화)과 그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연하남 윤동하(박서준·오른쪽)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담고 있다.

두 드라마 모두 연상·연하 커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로필3'의 주완이 순수하면서도 당돌한 '돌직구 연하남'인 반면 '마녀의 연애' 윤동하는 여자친구를 사고로 잃은 아픔이 있는 '사연 있는 연하남'이다.

하지만 '로필3'의 신주연과 '마녀의 연애' 반지연 둘 다 과거 연인에게 상처를 입고 사랑보단 일을 택한 요즘 시대 여성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다. 또 과거의 남자는 모두 선배 혹은 오빠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삶과 사랑에 지친 연상녀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연하남의 조합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드라마에서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신의 선물' 유사 논란

웹툰 '다시 봄'과 타임워프 비슷하지만 내용 달라

SBS 월화극 '신의 선물 14일'(사진)과 웹툰 '다시 봄'의 설정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의 선물'은 납치됐다 살해당한 딸을 살리기 위해 엄마 김수현(이보영)이 2주 전으로 타임워프해 범인을 추격하는 감성 스릴러 드라마다.

지난 2012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연재된 웹툰 '다시 봄'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의 슬픔에 자살을 택한 어머니가 타임워프를 통해 과거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티즌들은 두 작품 모두 딸을 잃은 어머니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후 과거로 돌아간다는 점에 유사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의 선물'은 딸을 살리기 위해 과거로 떠난 반면 '다시 봄'은 어머니가 시간 여행을 반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점이 다르다.

두 작품이 '타임워프'로 비교되자 네티즌들은 "타임워프 설정, SBS는 이것도 클리셰라고 할 텐가?" "신의 선물, 웹툰이나 만화 원작 베낀 드라마는 아니길 바란다" "요즘 드라마들 툭하면 표절 논란이 생기는데 참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지민기자 langkim@

“이번엔 중급자 배낭여행”

‘꽃할배’ 스페인편 나영석 PD “어르신들에게 추억 선물”

예능 버라이어티의 새 지평을 연 tvN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가 이번엔 스페인으로 떠난다.

나영석(사진) PD는 5일 ‘꽃할배’ 스페인 편 기자간담회에서 “이전까지는 처음 배낭여행을 경험하는 초급자 코스였다면 스페인 편은 중급자들의 배낭여행 콘셉트로 진행됐다”며 “이번엔 할배 4인방이 직접 여행 일정을 짜서 더욱 재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에는 해외 경험이 많은 짐꾼 이서진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번엔 할배들만의 진짜 배낭여행에 가까워졌다”며 “일정이 전보다 더 힘들어지면서 할배들의 솔직하고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을 세 번째 여행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나 PD는 “유럽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비교적 온화한 기후로 할배들이 여행하기 알맞은 장소라 선택했다”며 “또 짐꾼 이서진의 영어 실력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라 거기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서진은 앞서 다양한 해외 경험과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준비 없이 여행에 임했다면 이번엔 철저한 준비를 했다”며 “할아버지들을 위해 제작진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도 보여준다”고 말해 새로운 짐꾼의 모습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첫 방송 후 평균 연령 76세인 어른들과의 여행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나 PD는 “여행이란 편하게 가서 먹고 쉬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여행이란 일상의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힘들어해도 촬영이 끝난 후엔 ‘그때 힘들었지만 즐거웠다’며 웃으신다. 그게 가장 큰 추억으로 남는 것이다. 시청자들이 보기엔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작진들은 할배들에게 순간의 볼거리보단 오래 남는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싶다”며 여행 버라이어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소녀시대 컴백무대 오늘 열린다

새 앨범 ‘미스터미스터’를 발표한 소녀시대(사진)가 마침내 음악 방송에서 컴백 무대를 연다.

소녀시대는 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7일 KBS2 ‘뮤직뱅크’, 8일 MBC ‘쇼! 음악중심’, 9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선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타이틀곡 ‘미스터미스터’의 퍼포먼스를 최초 공개하는 것은 물론 ‘엠카운트다운’과 ‘쇼! 음악중심’에서는 ‘웨이트 어 미닛’을, ‘뮤직뱅크’와 ‘인기가요’에서는 ‘백허그’를 선사하는 등 수록곡 무대도 함께 선보인다.

‘웨이트 어 미닛’은 빈티지한 사운드와 레트로 스타일의 리듬, 경쾌한 멜로디가 멤버들의 리드미컬한 보컬과 잘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곡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 느끼게 되는 설렘과 애타는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백허그’는 소녀시대의 사랑스러우면서도 통통 튀는 보컬과 감성적이면서 귀여운 가사가 잘 어우러진 미디엄 템포 곡이다. /유순호기자 suno@

가슴 뛰는 뮤지컬 ‘보니앤클라이드’

흥행·작품성 검증받아… 내달 15일부터 재공연

뮤지컬 ‘보니앤클라이드’(사진)가 초연과 달라진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해 국내 초연됐던 이 뮤지컬은 다음달 15일부터 BBC아트센터 BBC홀에서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재공연된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실존했던 보니와 클라이드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했다. 두려움을 모르며 사회에 저항하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범죄 행각은 1967년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2009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2010년 플로리다 새러소타, 2011년 브로드웨이, 2012년 일본 도쿄와 오사카 공연을 거쳐 지난해 9월 한국에서의 초연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검증받았다.

거친 인생 속에서 자유를 갈구했던 클라이드 역에는 뮤지컬 흥행 보증수표 엄기준과 아이돌 스타인 샤이니 키, 제국의아이들 박형식이 초연에 이어 이번에도 출연을 결정했다. 가수 에녹이 새롭게 가세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랑을 선택한 매력적인 여자 보니 역은 가수 가희가 맡아 뮤지컬에 데뷔한다. 뮤지컬 배우 오소연이 더블 캐스팅됐다.

이 밖에 클라이드의 든든한 형 벅 역으로 뮤지컬 배우 서영주와 김법래가 출연한다.

11일 1차 티켓 오픈이 시작된다. 문의: 02)764-7857

/탁진현기자 tak0427@

‘노예 12년’ 아카데미 특수

박스오피스 4위 ‘껑충’

스티브 맥퀸 감독의 영화 ‘노예 12년’(사진)의 아카데미 특수가 시작됐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노예 12년’은 전날 하루 동안 전국 307개 상영관에서 922번 상영돼 2만397명(누적 관객 수 15만5773명)을 불러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3일 기록한 6위에서 2계단이나 상승했다.

이 영화는 3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상한 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배급사 판씨네마는 “작품상 수상 후 상영관 확대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본격적으로 아카데미 특수가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데미 특수는 미국에서 이미 시작됐다. 현지에서 DVD가 발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직전에 전주 대비 86% 상승한 극장 수입을 기록했다. 또 DVD 출시 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작품상 수상 이후 상영관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상영할 계획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흑인 감독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여우조연상과 각색상까지 수상해 3관왕에 오른 이 영화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노예주’와 그렇지 않은 ‘자유주’로 나뉘어 있던 1841년 미국을 배경으로 알아주는 음악가로 살다가 사기와 납치로 인해 노예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박스오피스 1~3위는 ‘논스톱’ ‘폼페이: 최후의 날’ ‘수상한 그녀’가 순서대로 차지했다. ‘노예 12년’이 박스오피스 4위에 진입하면서 ‘짜라시 : 위험한 소문’과 ‘겨울왕국’은 각각 한 단계 내려와 5위와 6위를 기록했다. /탁진현기자

‘300: 제국의 부활’ 서울서도 상영

입장권 수익배분 극적 합의

영화 ‘300’의 속편인 ‘300: 제국의 부활’(사진)을 서울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극장 입장권 수익을 분배하는 부율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미국 직배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와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는 ‘300: 제국의 부활’의 개봉을 이틀 앞둔 4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율 갈등 문제로 이 영화의 상영이 여의치 않았던 서울 소재 해당 멀티플렉스에서도 관람이 가능해졌다.

갈등은 지난해 CGV, 롯데시네마가 외화 직배사에 극장과 배급사의 부율을 기존 40대60에서 새롭게 50대50으로 조정한다고 알리면서 시작됐다.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호빗 2’ ‘몬스터 주식회사’ 등의 서울 상영이 불발됐고, 최근에는 ‘레고무비’ 등이 메가박스에서만 상영된 바 있다. /탁진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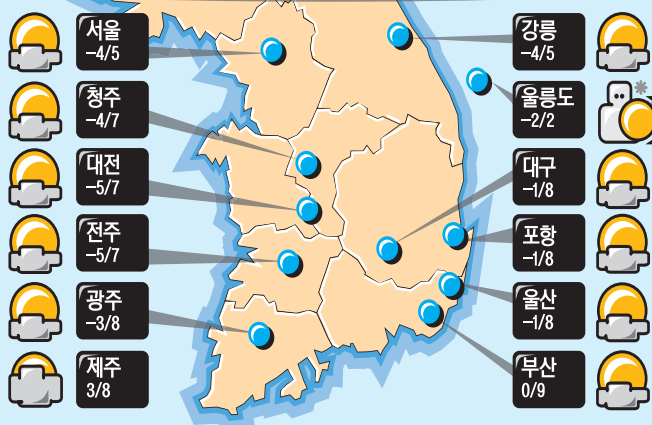
늦깎이 대학생 정성화

뮤지컬 스타 정성화(사진 오른쪽)가 한세대 공연예술학과 14학번 새내기가 됐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공연예술 특기자 최우수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4일 한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석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정성화는 무대에 올라 상장 수여를 마치고 “한세대학교 2014학번 정성화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입생이 돼 기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해 신입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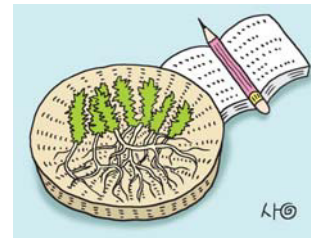
정성화는 1994년 SBS 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뮤지컬 배우로 전향했다. ‘맨오브 라만차’ ‘레미제라블’ ‘영웅’ 등의 주역을 맡았으며, 지난해 한국뮤지컬 대상 남우주연상, 뮤지컬 티켓 파워상, 뮤지컬어워드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하며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했다.

/탁진현기자

봄 냉이는 인삼보다 보약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계절 변화를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식탁이다. 밥상에 오른 냉이무침, 냉잇국 한 그릇으로 입안 가득 냉이 향기가 퍼질 때, 우리는 봄을 실감한다.

"산채는 일렀으니 봄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며 소루쟁이 물쑥이라, 달래김치 냉잇국은 비위를 깨치나니 본초를 상고하여 약재를 캐오리다."

조선 후기의 '농가월령가'의 한 구절로 달래김치, 냉잇국이 얼마나 입맛을 돋우는지 수천 년의 임상실험을 거쳐서 몸으로 체득했기에 옛사람들은 나물을 캐는 것이 아니라 의학서인 '본초(本草)'에 적힌 약재를 캐오겠다고 노래했다.

예전 할머니들의 말씀에 그른 것이 하나 없다. 겨울을 넘겨 싹트는 나물의 뿌리는 인삼보다도 명약이라고 했으니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나온 생명력만으로도 냉이가 보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산림경제'에 냉이는 성질이 따뜻해 오장을 조화롭게 해준다고 나온다.

그러고 보니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은 백이숙제는 굶어 죽었지만 서산에 올라 냉이 먹으며 공부한 채원정은 높은 학문의 경지를 이루었다. 채원정은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로 공자, 맹자의 뒤를 이은 주자(朱子)가 존경했다는 인물이다.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공부에 전념하려고 서산에 올라 냉이로 연명하며 학문을 닦았다. 주자의 명성을 듣고는 찾아가 제자로 받아주기를 간청하자, 학문의 깊이를 알아본 주자가 제자 삼기를 거절하고 동료의 예로써 대했다고 한다.

'동의보감'에도 냉이는 혈액순환에 좋고 눈을 맑게 한다고 했으니 채원정이 학문을 닦는데 냉이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봄철, 수험생 부모라면 참고해볼 만하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6		7
					1		9	
	7					2	8	
		2	3	4				
	8	4				7	1	
				1	6	9		
	2	3					6	
	4		1					
9		5		3				8

1	9			5		3		
	3	5			7			
	2		3					1
	6		8	7				
	1	4		9		6	8	
				2	1		5	
8					2		7	
			4			1	9	
		6		1			3	8

스도쿠 정답

3	5	1	2	9	8	6	4	7
2	6	8	4	7	1	3	9	5
4	7	9	5	6	3	2	8	1
1	9	2	3	4	7	8	5	6
6	8	4	9	2	5	7	1	3
5	3	7	8	1	6	9	2	4
8	2	3	7	5	4	1	6	9
7	4	6	1	8	9	5	3	2
9	1	5	6	3	2	4	7	8

1	9	8	2	5	6	3	4	7
6	3	5	1	4	7	8	2	9
4	2	7	3	8	9	5	6	1
5	6	2	8	7	4	9	1	3
7	1	4	5	9	3	6	8	2
3	8	9	6	2	1	7	5	4
8	5	1	9	3	2	4	7	6
2	7	3	4	6	8	1	9	5
9	4	6	7	1	5	2	3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재물 많은 사주, 실제는 달라 능력 키워 인테리어 도전하길

hynin 남자 80년 4월 10일 오전 7시

Q 사주를 보러 가면 재물이 많다고 하여 잘살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서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직업도 여러 가지로 전전해오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여학생 꽁무니만 따라다닌 제 잘못도 있으니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할지 진로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주에 재성(財星:재물)을 나타내는 오행이 많다고 하여 잘사는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고 또한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주위의 여건이 돼야 합니다. 호화롭고 화려하며 재능이 많으니 인테리어 일을 배워보십시오. 4월에 태어났고 역마가 있어 한곳에 집중하거나 안주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연출하기 쉬우니 어디를 가든 들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실함이 기본적으로 배여있으니 잘할 수 있으며 44세 이후 비겁(比劫: 동조자)이 되어 재물을 취할 수 있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과 불로 인한 수화재(水火災)가 염려되므로 비뇨기계통을 조심하고 보험을 들어두어야 합니다.

지인과 부동산 투자해도 될까 멀리있는 땅과는 인연 없을듯

배두산산 73년 12월 18일 자정

Q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서 돈에 대한 서러움을 많이 받고 살아 밥은 굶어도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했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 부동산 투자를 같이하자고 하는데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시점에는 대박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지 봐주세요.

A 천지합덕(天地合德)하는 명으로 무척 심성이 착하고 재복이 있음을 상징하며 청년기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식상운(食傷運: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들어와 식신생재(食神生財)하여 재물을 만들어내니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의 투자는 부동산을 사놓고 후일 땅값이 올라서 대박이 나기를 바라지만 4년 후는 기미(己未)대운이 들어와 재물이 묘지(墓地)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있으며 왕한 수기(水氣)가 합을 이뤄 섣불리 건드려 화를 당하는 형국으로 운이 가기 때문에 귀하와는 인연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기본적인 요소 중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가서 하는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6일 (음 2월 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욕심부리면 마음만 상한다. **60년생** 명분과 실리 사이서 고민의 하루~. **72년생** 공들인 일에 좋은 결실 맺는다. **84년생** 술자리서 말로 인한 실수 조심할 것.

49년생 사고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 **61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면 없던 행운도 따른다. **73년생** 배우자의 한결같은 마음에 든든~. **85년생** 상사의 칭찬에 의욕이 넘친다.

50년생 고민은 받아들이면 편안하다. **62년생** 해묵은 근심이 사라져 웃는 하루~. **74년생** 여유가 지나치면 딴생각한다. **86년생** 좋은 소식에 없던 입맛도 쑥~.

51년생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라. **63년생** 걱정한 문제는 풀린다. **75년생** 꿈은 같으나 처지가 다른 동반자 때문에 휴~. **87년생** 생각도 못 한 일에 비상이 걸린다.

52년생 식구가 웃으니 부러울 것 없다. **64년생** 공직자는 입장 분명히 밝혀라. **76년생** 물 장사는 매출이 껑충 오른다. **88년생** 꺼림칙한 제안은 단호히 거부할 것.

53년생 투자 권유는 그냥 흘려라. **65년생** 남쪽으로 가면 선물이 기다린다. **77년생** 큰일 하려면 변화를 두려워 마라. **89년생** 영화 같은 사랑에 자꾸 울음이 터진다.

42년생 자손에게 경사가 생긴다. **54년생** 굼벵이처럼 천천히 움직여야 이익~. **66년생** 척하면 알아서 하는 배우자가 든든하다. **78년생** 바라던 대로 일이 풀려 콧노래가 절로~.

43년생 부담스러운 약속은 피하라. **55년생** 피할 수 없는 부탁받고 고민에 빠진다. **67년생** 적이 많으니 자중이 상책~. **79년생** 걱정한 일은 전화위복이 된다.

44년생 편안한 사람과 한잔이 즐겁다. **56년생** 불리해도 부정적 생각은 금물~. **67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 격이다. **80년생** 약점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라.

45년생 답답할 땐 외출이 약~. **57년생** 온실 화초가 시베리아로 간 격이다. **69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 **81년생**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약이 된다.

46년생 돈 문제로 어려움 예상된다. **58년생** 웃을 일이 생겨 즐겁구나. **70년생** 역마가 동해 움직이면 경사 잇따른다. **82년생** 요행보단 땀으로 승부를 걸어라.

47년생 길흉 없이 무탈한 하루~. **5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71년생** 역에 도착하니 기차가 떠나는 형국~. **83년생** 최선을 다하면 없던 길도 열린다.

1이닝 1실점 오승환 "구속 OK"

시범경기 첫 등판 148km 씽씽 '감각 끌어 올리기'
이대호 2타수 무안타 그쳐…맞대결 다음 기회에

'거포'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와 '한신 마무리'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의 맞대결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5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2014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시범경기에서 맞대결을 예고했던 이들은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날 소프트뱅크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이대호는 2타수 무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시범경기 5경기에서 8타수 1안타로 0.250을 마크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이대호는 "아직 타격감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다음 주부터는 한 경기에 3~4타석 들어서면서 감각을 더 끌어올릴 생각이다"라고 말해 타격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대호는 2회말 선두타자로 첫 타석에 등장해 한신 외국인 선발 랜디 메신저의 바깥쪽 공을 잘 밀어쳐 라이너 타구를 날렸으나 우익수 후쿠도메 고스케에게 잡히며 아쉽게 뜬공 아웃됐다. 4회말 두 번째 타석에도 선두타자로 나온 이대호는 우완 이와모토 아키라를 맞아 6구 승부를 벌였으나 낮게 떨어지는 포크볼에 속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시범경기 두 번째 삼진이었다.

소프트뱅크 이대호와 한신 타이거스 오승환이 5일 시범경기가 열린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대호는 오승환에게 자신의 배트를 선물했다. /연합뉴스

이대호는 6회말 2사 1루 주자없는 상황에서 대타 마쓰나카 노부히로로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이날 시범경기 첫 등판이 예정된 한신 오승환과 한국인 투타 맞대결도 불발됐다.

오승환은 7회 구원등판, 1이닝 2피안타 1사구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일본팀을 상대로 가진 첫 공식 경기에서 쉽지 않은 신고식을 치렀다. 총 투구수는 18개였고 그 중 14개가 스트라이크였다. 최고 구속은 148km가 나왔다.

이날 오승환은 대부분 공을 직구로 던졌다. 직구로 5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비록 실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직구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타자들도 5개의 파울로 커트하는 등 오승환의 공에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아웃카운트 3개 중 2개를 변화구로 잡았다는 점에서 직구의 힘을 살릴 수 있는 변화구를 가다듬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

오승환은 "지금까지는 준비를 잘했고 남은 시범경기도 정규시즌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며 "100%의 몸 상태로 정규시즌 개막을 맞이하도록 페이스를 잃지 않고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추신수 시범경기 첫 안타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의 방망이가 마침내 터졌다.

추신수는 5일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의 디아블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시범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텍사스 이적 후 공식 경기 첫 안타와 타점이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시범경기에서 무안타로 침묵했고 왼팔 통증으로 이틀간 휴식하는 등 올해 세 차례 시범경기에서 무안타 1볼넷만을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0-2로 뒤진 3회 무사 1·2루의 두 번째 타석에서 에인절스의 선발 타일러 스캐그스의 초구를 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추신수의 안타로 2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왔다.

4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6회 수비 때 브라이언 피터슨으로 교체됐다. 텍사스는 4-7로 졌다. 텍사스의 일본인 선발 다르빗슈 유는 1피홈런을 비롯해 3이닝 3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suno@

컬링 여자 주니어대표팀 김경애(가운데)가 5일(현지시간) 스위스 플림스에서 열린 2014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샷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지현, 오른쪽은 오은진. /세계컬링연맹 제공

J 여자컬링 사상 첫 은메달

한국 여자 컬링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자 컬링 주니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경애(20·경북체육회)와 김선영(21·경북체육회), 김지현(18·의성여고), 구영은(19·의성여고), 오은진(21·의성스포츠클럽)으로 구성된 여자 주니어 대표팀은 5일 스위스 플림스에서 열린 2014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캐나다에 4-6으로 져 준우승했다.

한국 컬링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주니어와 일반부를 통틀어 최초다. 종전까지는 2004년 주니어 대회에서 남자 대표팀과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대표팀이 각각 4강에 오른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양성운기자

SK, 삼성에 덜미…정규리그 3위 확정

SK 문경은 감독이 개인통산 100승을 앞두고 또 한번 패배의 쓴잔을 들이켰다.

서울 SK는 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69-73으로 패했다.

이날 SK가 승리했다면 문경은 SK 감독이 개인통산 100번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또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또한 SK는 정규시즌 순위가 3위로 확정돼 4강 플레이오프 직행할 수 있는 2위 자리도 놓쳤다.

SK는 이날 턴오버 16개를 저지르며 패배를 자초했다. 김태주에게만 스틸 5개를 헌납하는 등 삼성 선수들에게 스틸 12개를 내줬다.

경기 후 문 감독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빈 껍데기들이 경기장에서 흉내만 낸 것 같았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주고 시작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 빨리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 팀은 강팀 이미지는 있지만 선수들이 기본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팀이 아니다. 오늘 차라리 진 게 나부터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플레이오프를 잘 준비하겠다"라면서 분위기 전환을 통해 6강 플레이오프에 대비할 것임을 밝혔다.

다행인 것은 6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부산 KT(5승1패), 고양 오리온스(6승), 인천 전자랜드(4승1패)를 상대로 정규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문 감독은 "이 팀들이 코트니 심스의 높이에 부담을 느끼는 편"이라며 "6강 플레이오프까지 심스를 활용한 공격과 수비 전술을 가다듬어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성운기자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슛' 5일 오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서울 SK 대 서울 삼성 경기. SK 코트니 심스가 삼성 허버트 힐의 블록슛을 피해 원핸드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전적 5일

팀					
SK	12	16	25	16	69
삼성	13	24	19	17	73
KT	19	16	24	21	80
동부	14	25	14	21	74
국민은행	18	20	18	19	75
우리은행	17	8	20	13	58

소치 패럴림픽 8일 개막

2014 동계 패럴림픽이 8일 오전 1시 러시아 소치의 피시트 스타디움에서 개막한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썰매하키) 등 5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대결하는 가운데 한국은 휠체어컬링, 썰매하키, 알파인스키 등에 선수 27명, 임원 30명 등 57명을 파견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적이 없으며 은메달만 두 개 따냈다.

이번 대회는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갈등 때문에 정상 개최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독일 등 참가 거부를 결정했던 국가들이 자국 고위 관료를 파견하지 않는 선의 정치적 선언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순호기자

프로배구 전적 5일

현대건설	3	0	흥국생명
한국전력	0	3	대한항공